제주의 명품, 신창 초·중 통합 학교

교실수업은일방적인주입식교육에서개개 아동의 능력과 관심을 존중하고 학습에 대한 내재적흥미를북돋기 위한개별화된학습자중심교육으로탈바꿈되어가고있다. 이렇게개별화교육을위해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교육 환경의 변화이다.

관념적 형태 지양, 상징적 조형미 추구

제주의신창초 · 중학교의변화된모습이야말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역사가 오랜신창초등학교의교정에는8년전외부환경과 조화를 이룬 현대식 건물이 지어졌다. 아름다운 교정에는 아름드리 향나무가수호신처럼우뚝서있다.

이학교의학생들은‘ 꾸준히배워바르게 행하자 ’라는 교훈 아래 중학교 79명, 초등학교176명, 유치원8명등총 263명이 30명의 선생님들로부터 지도를 받으며창의적으로미래를열어가는슬기롭고건전한사람으로자라고있다.

신창 초 · 중학교는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 사회가 한 마음이 되어 전통 있는 여러 초등학교를통합한 데이어초등학교와 중학교도 통합해 만들어졌다. 학생 수감소에따른소규모 학교의 원활한 통합으로 학교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한것이다. 이러한특성을살려이학교는봉사체험활동을통한공동체 의식함양교육을추진하고있다.

신창 초 · 중 통합 학교는 생활 환경이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에게교육, 문화, 정보등의혜택을 누릴수있도록각종시설을갖추고있다. 또한, 학교가 교육 문화 중심지로 개발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준의 향상에도 일익을담당하고있다.

학교의 외부 디자인은 요란하지 않다. 하지만 입면은 관념적인 학교 건물 형태에서 벗어나 현대적 감각과 상징적 조형미를 나타내도록 하였고, 옥상 중앙에는 돔 형태의 톱 라이트(top light)를설치해 상징적 효과를 추구하였다. 특히, 초등학교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새로 지은 중학교 교사(校舍)와 어울리도록 하였으며, 외부와학교의경계가없고외부출입구주변에지역주민과함께이용할수있는 야외 학습장을 갖추었다. 외벽마감재는 제주의 토속 재료인 현무암을 가공한 송이타일을사용하여애향심을높였다.

건물의 배치는 남향의 기존 동과 수목서식지사이빈 공간에고저 차를 이용하여 신축 대지를 계획하였다. 그리고보행자와차량의동선을진입로에서부터분리해 교내 차량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이용 시설인 시청각실, 지역정보실 등은 별도로 출입구를 설치하였다. 교실은 기존의 정문과 후문에서의 접근을 고려하고 가능한 한 기존 수목을 보존하면서 일조권이 좋은 남향이 되도록 배치하였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평면 계획

신축 건물의 좌측은 초등학교, 우측은 중학교 영역으로 구분하여 중앙에 관리부분을 집약시켰다. 이처럼 초등학교와 중학교영역이 만나는 중앙 홀부분을 오픈시키고 주변에 관리 공간을 배치한 기법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1층 로비는 전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청각실은 로비 옆에 배치하여 학생 및주민들의이용이편리하도록하였다.

초등학교 교실은 L자형 배치로 3개 층에 각기 열린 교실을 두었고, 중학교는1층홈베이스, 2 · 3층은교과교실로계획

하였다. 특히, 지역주민들이 학교를 이용하는점을감안하여저층중앙부에교실을배치하여소음및시선을차단하고수업에방해가되지않도록하였다.

한편, 이 학교는 기존교사동방향을주축, 동쪽 스탠드 방향을보조축으로하여건물의방향성을설정하였으며, 기존교사동과신축동사이의간격을두고배치하여입면상이질감을완화시켰다. 그리고기존교실동의 일부를 지원 시설로 리모델링하여2층에서브리지로연결, 학생들의이동에편리성을도모하였다.

학교보다더오래된역사를간직하고있는 애육산 숲 공원에는 팽나무 한 그루가 베란다 난간에 기대어서 있다. 이곳의 고목들은수많은어린이들의손때가묻은것처럼 추억이 묻어나 더욱 정겹게 느껴진다. 베란다에서면푸른새싹을만져볼 수 있을 정도로 나무는 아이들 곁에 바짝 다가와 건물과도 더욱 친숙해져 있다. 특히, 중학교 신축 교실동에서는 남측 베란다를 통해 푸른 수목들의 정기를 받을 수 있는데 그 환경이 가히 무릉도원을 방불케 한다. 이러한 환경은 공사 당시부터 팽나무 보존을위해건물의배치가재조정되고공사 중에 훼손되지 않도록 거친 일손의 위험 속에서도 극진히 보살핀 데 따른 것이다.

학교 시설은 초등학교에6실의학년 단위의 열린 교실과 도서실, 과학실, 교사연구실, 탈의실 등이 있으며, 중학교에는홈베이스 1실 외에 교과별 교실, 과학실, 기술실, 도서실등이있다. 그외에초등학교 겸용의여러가지다용도실이잘갖추어져 있다. 지원실로는130명을수용할수있는 시청각실과 식당 및 조리실, 지역정보실, 어린이놀이방등이있다.

부대시설도뛰어나다. 운동장과연계해 초등학교의저 · 고학년놀이공간과잘조성된숲공원이함께어우러져한폭의그림을보는듯하다. 교사(校舍) 주변의울창한수목과석태낀제주석스탠드, 담장및 조경 등 각종 구조물이 지역의 오랜 역사를 자랑하듯 고풍이 서려 있다. 이를 살리기 위해당초의기본계획이여러차례피드백되어수정되기도하였다. 이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 건축가등이밀도 있는 연구 · 협의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공사비 절감을 위해 증축 건물은기존건물을보존하면서부족한면적을 확보하였다.

숲속의학습.

관광 자원으로 거듭난 명품 학교

공동체의식으로표출된학교시설계획은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춘 시범학교 공간계획으로초등학교는열린교육을위한교수 · 학습 공간 구성을, 중학교는 수준별 교육을위한교과별교실형전개로의견을 모았다.

교과 교실 및 확충된 내부 시설은 현대화된학습기기를설치해설비의현대화를 꾀하였다. 그리고학교정보화에대응하기 위해 컴퓨터 관련 학습 공간을 구성하였다. 나아가평생교육 장소로서 학교를 지역사회와연계된커뮤니티시설로활용토록 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였다.

신창초 · 중통합학교의훌륭한시설이 있기까지에는교직원은물론장학사, 시설

차도와인도가분리된진입로.

기존건물의리모델링.

기존건물과연계된브릿지.

관계자들과 창의적 역할을 주도한 양상철 건축사무관의헌신이있었다. 이들의열정과 헌신으로 거듭난 이 학교는 지역 주민들을다시모이게하고지역이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비록 인구가 감소하여 지역의 소규모 학교를 물리적으로 통합시키고 있지만 제주의 명품 학교로서, 그리고 관광 자원으로서 지역을 회생시키는 아름다운학교로더욱 발전하길기대해본다.

정관영
충북교육청건축사무관(공학박사)